平南各地豪雨로 大同江沿岸危險切迫

十二日午後七時半外地增水十八尺

한시간에한자식자고중수되어감으로 연강일대는인심이흉흉하야피난준비

麥田江의 增水

家屋倒壞로 女子一名慘死

보통강류역에서

松禾方面의 豪雨

附近交通杜絶, 家屋流失

晉州地方에 아직까지도퍼붓는비가

軍資募集靑年 세명이

加平에 喜雨

宮城侵入頻頻

또궁성에침입하려다발각 犯人은 繼續取調中

職工二名 又 引致

大東事件續報

종로경찰의로공회원

『誠意』 것

파업단에대하야

平北博川의 大洪水

江河增水四十餘尺, 浸水四百戶 그디방에서근년에보지못하든홍수이다

成川署의 巡査의 失手

無期判決바든 金祉燮不服上告

수도와소림두명도상고

校金二千圓을 횡령한

……하더라(뢰조)

記者에게 暴行

金組書記가 사회면제재를 할필요가잇다

仁川에 浸水多數

松林里埋築地까닭에 비가조금만와도물이들어 십여일사이에지질성팔호침수

尹正燮巡査와 羅晴湖住持

부리도민에게는 못니즐은인

前大臣後藤氏아들

新須賀에

旱災後海溢로 西海面民流離

년래거듭하는재앙에빠젓다가 또다시금번의참해를입고나서

평남평원군서해면(平原郡西海面)에거주하는천여호는 이번해일(海溢)로참해를낭하야살수가 업서 남부여대하고 류리하게되엿다는데 동면의일반주민은득긔미년(己未年)이후로 매년 한재로인하야 천여호의주민이팔백호밧게남지안엇는데 그 팔백호의주민도 먹고입을것이엽서 마대(麻袋)를걸처고풀색리를캐여먹고혹은일인에게 토디를 팔어먹고혹은사랑하는딸자식을금전에팔어먹고 혹은농사하든 소(牛)를팔어먹고 그것도 업는사람들은긔아에빠저헤매이다가설상가상으로 이번재앙을 또맛낫는바할수업시류리개걸하는수밧게업는형편이라더라

上海虎疫猖獗로 總督府採便檢查施行

상해로부터오는선객에게 십오일부터뎡류검역실행

중국상해(上海)에는지난달십팔일경부터 호렬자(虎列剌)가 발생하야 그후전전만연하야 지난십일까지 일백륙십여명의 환자를내이엿스며 그후 더욱심하야매일의사(疑似)환자백여명식을 내일뿐아니라일본장긔(長崎)에도 상해계통의 의사환자가발생하엿슴으로 총독부 당국에서는상해로부터 오는 선원(船員)선객(船客)에 대하야 오는십오일부터뎡류검역(停留檢疫)을실시하야채편(採便)검사를행하리라더라

成川邑도危險狀態

한시동안에일척식증수되야 각일각으로위험을늣기는중

大同江上流交通이全部杜絶

◇仁川에小火

지나간 십일일 열한시경에 인천부화정(花町)십구번디김수하(金守和)의집에불이나서일시대소동을닐으키엇는데이급보를들은경비소방조원이출동하야동십이시경에진화하엿다하며발화한원인은 그집실내의 뎐등이두뎐되야 모긔장에불이부터서반자에까지 불길이옴기어 그가티 불이난것이라하며손해는약삼원가량이라더라(인천)

法廷에나타난 各樣의離婚條件

십년이십년식가티살다가 여러가지됴건으로리혼소

現代社會相의一面

근일에새로히 경성디방법원에 드러온 리혼소송(離婚訴訟)을 보건대 날마다추이되는 세태가 얼마나 인간의설음을 자아내는지가히 그일단을 엿볼수가잇다

◇서대문 박현저동(朴峴底洞)이번디 리보복(李寶福)(二三)이란녀자는 원적을 안성군원곡면내가천리(安城郡元谷面內加川里)구십이번디에두고 방금서대문감옥에 복역(服役)중인 그의남편최은식(崔殷植)(二七)을상대로하야 리혼청구소송을 뎨긔하엿는대 그내용인즉 그들은지금으로부터 구년전삼월십오일에 결혼을하고 새로온가뎡을이루어오던중 그의남편은 삼일운동의뒤를이어 운동을하다가 대정십년일월이십이일에경성복심법원에서보안법위반 소요공문서훼기죄(保安法違反騷擾公文書毁棄罪)로십이년징역의 판결을밧고 방금복역중인데 자긔는 청춘의몸으로 십여년이란 긴세월을바라고 살수업다는 리유로리혼을청구한것이라더라

◇광주군 실촌면건업리(廣州郡實村面建業里) 리석은(李錫銀)(二四)은 그의처송원두(宋院頭)(二五)를상대로리혼을청구하엿는데 그들은 지금부터십구년전에 결혼후약사년간 동거하다가 무단히녀자가 집을떠나간후 이래십사오년동안 생사가불명함으로 그와가티 리혼코저한것이라더라

◇양주군 구리면토평리(楊州郡九里面土坪里)구백삼십삼번디류덕선(柳德先)은해주군송림면련평리(海州郡松林面連坪里)에잇는그의처박삼란(朴三蘭)(二九)을걸어 리혼청구를하엿는데 그내용인즉 그들은지금으로부터 이십오년전에 결혼하야이래 어이십사년동안을 원만한 가뎡을 이루워나려오든바 현재 십팔세된 장녀뎡분(長女貞分)과 십륙세된장남 길산(吉山)과 구세된 차녀뎡련(次女貞連)과 네살된 차남성문(次男成文)의 사남매의자녀까지두엇는데 류덕선이가 상업차로 강원도디방(江原道地方)에려행한사이에 박삼란은 이웃남자김종만(金鍾萬)과 비밀이정을통하게되여 그후덕선이가 도라온후에 마츰내차남과 차녀를다리고 김종만파가티 개성까지 도망을한일까지잇서 비록수십년 동거의정의는 말할수 업시두터우나압흐로도저히가뎡의 원만을 보전할수 업승으로 그와가티 리혼청구를 한것이라더라

◇덕원군 적뎐면신풍리(德源郡赤田面新豊里)일백이번디서군자(徐君子)(二四)란녀자는 자긔남편인시내홍파동(紅把洞)일백오십번디사는 목사김익두(牧師金益斗)의아들정식(鼎植)(二六)을 상대로하야 리혼소송을 뎨긔하엿는데 그들은팔년전에결혼하고 현재네살먹은 아들까지두엇는바 수년전부터 정식은 군자에게대하야 애정이 몹변하야서대문뎡김형수의집에류하는 한초세(韓初世)란녀자와정을통하야이까지 지나고갈사록학대가심함으로부득이자긔친뎡으로도라가잇스면서그와가티리혼소송을뎨긔한것이라더라

平壤府의糞尿價 一年에萬四千圓

부근농민이모다사간다

십만이상의평양부민에게로부터 날마다소출되는분뇨(糞尿)의총량(總量)는대관절 멧백석이나 되는가부위생과(府衛生課)의됴사에의하건대 하로동안의총량이 사백닷섬이나되고 그의가격이 매월평균 일백이십원가량이 나되야그로인한부의수입(收入)이실로 년일만사천원 가량이나된다는바이와가티만흔『거름』은 부근농민들이 다사간다하며 이외에보통진개(塵芥)로만또한매일삼백구십여석이나소출된다더라(평양)

白晝에强盜出現

양평갈산면『비우고개』에 범인은아죽잡지못하엿다

지나간이일 오후륙시경에 양평군읍내(楊平郡邑內) 사람들은 관민을물론하고 일시대소동이 되야 경찰서원들은 자동차와 자전거로 활동을 시작하엿는데 그내용은 갈산면배안리뒤산(葛山面白安里後山)『비우고개』에서 두명의강도(强盜)가 행인을 살해하고 금전을탈취 한다는말을듯고 소동함이라는데 그실상은 동문면연수리(東門面延水里)거주 사는정업이(鄭業伊)에게 돈칠십원과 김정귀(金正龜)에게 이십전을 쌔아서가지고 다라낫다는바 살해를하엿다는것은 랑설이오 작대기로따려 죽이겟다고 위협을 하얏다는데 경찰은우금까지 범인을데포치 못하엿다더라(양평)

川獵後에溺死

원인은알수업다

지난오일오후오시경에평남평원군청산면구원리(平南平原郡靑山面舊院里)사는 김학년(金學年)(四〇)은자긔의친구 두사람과가티 고기잡이를갓다가 잡은고기로세사람이 술을마신후 취흥으로복욕을하다가두사람은몬저나와서 집으로도라가자고하며 자긔는 뒤에가겟다하야친구들을보내고 그사람이 죽엇다는데 그의친구들은 천보가량이나와도그사람이 오지안음으로 어망을내다가건젓는데 그원인은알수업다더라(평원)

本夫를排斥하고 色酒家에自賣

일반이라매한다

함남홍원군 보청면 신중리(咸南洪原郡甫靑面新中里) 지종호(池宗浩)의장녀지성녀(池姓女)(二四)는 지금으로부터 오년전그동리사는 박인준(朴寅俊)의 처가되야 현금네살된아들까지 잇

一棒으로 二女를一時打殺

안해때문에처남과싸호고 장모와처남의댁을착살해

鐵原郡山谷間에慘事

지난칠일오후네시경에텰원군갈말면문혜리산골(鐵原郡葛末面文惠里三星洞)에 녀자시톄들이 널부러젓는데하나는삼십이나된 젊은부인이두부(頭部)중앙을길이삼촌오푼(三寸五分)깁히는두개골(頭蓋骨)까지 파상되여노장(腦漿)이나오고 륙십이나되여보이는부인은 오른편귀쪽(耳部)골이사방사촌이나 파상되여이문(耳門)으로피와노장(腦漿)이나와 혈해를이루엇는데피속에파무친 어린아이가 어머니등에업힌채로 애연히우는 형상은 목불인견인데 그때현장에 갈말면문혜리주재소순사(葛末面駐在所巡査)가출장하야 됴사한결과 그내용을자세히 됴사하건대 갈말면동막리 일백이십칠번디차승근(鐵原郡葛末面東幕里一二七番地車聖根)(三一)은 금년일월경동군동면군탄리(軍炭里)칠백십팔번디 로복여의딸리분(利分)(一九)으로더부러백년가약을매저화락한가뎡을이루어오든바 지난륙월분에 돌연히집을 나가드러오지아니함으로차승근은 수세월하야 자커오기를 상차나하야가려살든바 피월상순에는어데로다라낫는지 아모리수색을하엿스나 거처를 모르겟는고로 전긔로복여는 자긔처가로가서 장모리씨(李氏)를 보고자긔안해를 차저내라고 야단을쳐다가 서로언사가 불순하여지서 「집처남하고 싸워서로 구타하다가 차승근이가 이마를부상하고 분하야 그곳주재소에 가서 고소를하엿스나 순사는 피차화해하야 조토록지내라고 효유하고 고만두는 고로분함을 참지못하야 그처가로와서그곳 주재소에서 부른다고 장모리씨를다리고 나오는중에 며느리가 수상히생각하고 뒤를쏫자 문혜리삼성동골에까지온차승근은 물면히참나무 몽동이(赤棒)로 일시에타살하야 그와가튼 참혹한 현상을이루엇는데 범죄자는 사방으로 수색하엿스나거처를모른다더라

東明劇場의 本報讀者優待

각등반액으로

본보함흥지국에서는애독자를위안하기위하야당디 동명극장(東明劇場)과 교섭한결과이로부터우리독자에게대하야는 각등반액으로우대하게되엿스며 우대권은매주일한번식지면에삽입할터

金塊密輸犯 六個月求刑

여섯명전부를

금괴밀수(金塊密輸)의혐의로검거되얏던 김리섭(金利涉)외 륙명의 데일회공판은 지난십일일오전십일시사십오분에 평양디방법원 데이호법뎡에서 최검사(崔檢事)의 립회와 황권사(荒卷) 재판장의 심리아래개뎡되얏는데 당일은 비가옴을 불구하고 방텽석은 립추의여디가업시 만원이되엿다 황권재판장으로부터 사실심문이 잇슨후변호사 김지건(金志健) 한근조(韓根祖) 김응석(金膺楠) 삼씨의변론이 잇섯는데 피고중신하요(申河容)으로말하면 공모(共謀)가아니고 또신의주(新義州)에서 관계된사실이잇슴으로별로히 심리하기로하고 그외륙명에게대하야 검사로부터 다음과가티구형(求刑)을한후오후두시에폐뎡하얏는데 언도긔일(言渡期日)은 다음십이일로뎡하얏더라(평양)

平壤府陸路里一七 丁若淵
同 薛岩里二八七李寅明
同 敎貫里一三三韓三賢
同 館後里一六五金利涉
同 倉田里一三七黃亨健
同 館後里一六三金仁煥
(以上懲役六個月)

男便의뒤를따라飮毒

생명이매우위독

충북뎨천군읍내 박재구(忠北堤川郡邑內方在九)의안해류씨(柳氏)(二九)지난 팔일오후두시경에 그의 남편이 방금이십이세청년으로 숙병(宿病)으로 세상을떠난바그의뒤를따르고자동일오후 세시경에 양재人물을 먹고고민하든중에 동리사람에게 발각되야당디공의가 현장에 출장하야 응급치료를하얏슴으로 아즉 그 생명는 부텃스나 매우위독하다더라(뎨천)

人妻人子를誘引逃走

본부는부개하야 아들만찻겟다고

충북청주군 청주면대성뎡(忠北淸州郡淸州面大成町)에사는 구연흥(具然興)(二六)은금년삼월경부터 청주면의 고등보통학교와 보통학교 건축긔부금의 수금원으로잇든바 지난 구일오전열한시반차로 청주를떠나 경성방면으로 비밀히종적을감춘듯 함으로 혹공금을횡령도주하지나 안헛는가하는 의심이 잇슬뿐아니라겸하야청주읍시장뎡(市場町)구왈문(具日文)의처김씨(金氏)(二七)를함씌다리고도망하얏슴으로본부구왈문의 수색청원이 잇서목하 청주경찰서에서는 각방면으로 수색중이라는데 전긔구연흥이가 구왈문의처를 유인도주한데 대하야 그본부의말을 듯건대 도주한안해는 십여년동거해오든 조강지처로 생활이곤난하야 음식뎜영업을해 왓섯는데 얼마전에구연흥이가 차저와서처음으로 자긔와 인사를하며 동성이라고 매우반갑다고 친절히한일이 잇섯스나 아모런별다른눈치는 전연몰라왓섯는데 어느사이에 정을통하얏다가 그가 터된 모양으로 집에서약백오십원가량의 금품을가지고 보통학교일학년다니는 아홉살된 아들까지다리고 갓는바 붉가불아들이나 찻고자수색원을 뎨출한것이요 버리고간계집은 못이저함은아닌바 어느배까지든지 아들이나설배까지 죽기를 결심하고찻겟다고말하더라(청주)

寡婦가產兒하야 壓殺暗埋

사실이발각되야 경찰서에잡혓다

……이며 지뎡한일자(日字)에 긔회를 일치말고만히리유하기를바란다(하동)

평양부내 신양리(新陽里)일백팔십일번디 최란홍(崔蘭紅)(三七)은 은수일전에 계집아이를나아가지고즉시 그자리에서 죽여바린후 자긔집안『침채독』엽헤 파무더두엇다가 그것이 발각되야십일오후에 평양서에 톄포되엿다는바 그내용을 알아보건대 전긔 최란홍은 오래전부터 과부의 몸으로 그동안에도 수반혼남자를 함부로상관하야 오든 중에 이번에그가 아이를생산하게되매 미련한생각에 그것을크게붓그러히생각하고그가티악착한행동을하엿든더 에십일오후에 이르러는 그의맛아들되는 김봉긔(金鳳紀)(二一)가 전긔 침채독부근에서놀다가파무든어린아이 머리가 땅밧그로 나온것을보고 떠든까닭에 부근사람이 모혀들어곳발각이된것이라더라(평양)

殺人强盜 死刑求刑

판결은 오는십오일에한다

지난륙일에 경성디방법원 데칠호법뎡에서 개뎡되엿던 살인강도사긔범(殺人强盜詐欺犯)에대한 데이회공판은 예뎡과가티십일오전에동법원에서궁본(宮本)재판장의 심리하에열리어전회공판뎡진술에 틀림이 업느냐고 간단한심문이잇슨후암성(岩城)검사로부터 피고의죄상은이번공판뎡에서도 사실의 일부를 자백하엿고 또는경찰서에서와 예심뎡에서는 사실을 전부인뎡 한동시에 피고의 그와가티이웃 친구를 참살하고 그후에도조곰도 회개의빗이업시 여전히 그강탈한 돈권을 사긔행사까지한것을보면 조곰도 동정할 여디가업슴으로 극형에 처하는것 이맛당하다고 설파후 마츰내사형(死刑)의구형을하자 관선변호사(官選辯護士)류문환(劉文煥)씨가일어서서 본사건에 잇서서는 피고가비록 경찰서와예심뎡에서 사실을인뎡하얏다하나 본법뎡에서 사실을부인하는 동시에 본사건의주범인최성학(崔聖學)을데포치못한이상 사건의일단을가지고서 극형(極刑)에 처한다함은 너무 가혹한일인줄로 생각한다는것으로변론을마치자 재판장으로부터 오는 십오일에 언도하기로하고폐뎡하얏다더라

咬人犬

광화문통의일본인의개

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일백사십칠번디 화뎐무부(花田武夫)일백사의개는 오후두시반경에 시내서린동(瑞麟洞)일백삼십칠번디김봉춘(金鳳春)(一四)을무러서중상케하엿는데그개는이번에세번재 그와가티 사람을무러중상케 하엿다하나 미친개는아니라더라

휘파람

함경남도단천군에서는군내중요사항을천군민의여론에맛기여결뎡하자는의미로군민대회를군당국의후원으로개최하고자하얏다가▲경찰서에서불온하다고 대회를 금지함으로 상담회(相談會)라는형식으로하리라고 한다 단천경찰서도어지간한 모양이다 사람모이는것이 그가티성가시거든경찰서나주재소는 인적이만리안혼 태산상봉에다가두엇스면조흘던마는▲구라야 사람만흔곳에 갓다두는것은무슨까닭인지?

湯平에傳染病

가뎡부인

해수욕과 귀단속(二)

물놀애에이는것이더욱위험 코로들어가는물이어렵다

바람보나 귀에개로 귀를후비여 귀속을 자극시키면 사람의눈에 보히지아니하는상피(上皮)가버서지기쉬우며 심하며는 고막까지자극시키는일이만습니다 또는 귀속을후비다가 볶의에 손을건드려고막을상하는일도업지안으니 고막에상처가생기면 곳그리로미균이드러갑니다

귀속에는 언제든지미균이드러잇서 항상긔회를 기다리다가그상처로부터기여드러가서 귀속에 종긔가 나는것이올시다 이것이 즉 외이염(外耳炎)외텽도염(外聽道炎)이생기는원인이올시다 그럼으로귀에물이 들어가는것이위험함이아니라귀에물을빼이기위하야 귀를 후비다가 병을일으키는것입니다 해수욕을하다가 바다물이 귀에드러가면 귀속이가려워지는고로 손가락으로귀를후비고귀개를너허보고하게됩니다 엇던사람은 귀에서 누른물이나오도록 귀를쓰시나니 귀속에상처가생기여 그리로곳

균이드러 갑니다특별히 귀구멍 코구멍 손톱끗헤는본시 미균이만히잇는싸닭으로조금이라도 귀에상처가생기거나 저항력이약하야지면 미균이 크게권세를잡어 병으로하여곰 자긔압헤굴복하게합니다그러나전문가가 귀속에물이드러가면 위험하다고하는것은지금여긔말한것과는매우다릅니다 그것은 고막내측(內側)에물이드러가는것을이름이니 즉 코로부터귀에물이드러가는것이올시다

귀구멍은 코속에도하나 잇습니다 보통사람의눈에는 보히지안으나코속에귀구멍이잇다는것은 능히상상할수 잇습니다 코를손으로쥐이고입으로부터 공긔를코로드려마신다던지코를 풀때에힘것긔운을쓰면귀가울립니다그쏀아니라감긔가들엇슬적에귀에서소리가나는것을보아도 코속에도귀구멍이잇는것을가히 짐작할수 잇습니다 물이귀에드러가면 위험하다는것이 즉코로부터 귀에물이드러감을 말함이올시다 엇더케그리로 물이드러가느냐하면 바다에서

헤엄칠때 에얼골까지물에 푹드러가지안어도 제절로 엇지엇지하야 입이나코에 물이드려갑니다 그때에코를 푸는것처럼「흥흥」하고 숨을 내쉬이다가귀에물을 드려보내는 것이올시다그런데 코로부터 귀에물이 드려가면 다시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물이잘드려가지안는 이만큼잘나오지도 안습니다 코가온데잇는 귀구멍은 다른구멍과가티둥그러처 아니하고 평평하고 길죽하며 좁은고로 드려가기나 나오기가

일반으로 용이치안습니다 그러고 고막의외측과 달러서 내측(內側)인 그만큼 만만하고로자극도더강하게바드며코속에잇든 미균이나물에잇든 미균이 물과함씌 귀로드러가면 그드러간비례대로 경중의 차이가잇스나하여간 중이염(中耳炎)을 곳 발생케합니다 다행히 미균이석기여잇지 안을때에는 한참동안 고막의내측을 자극하야 조금압흘쎈이오 별로병을 이르키는일은업습니다 ―(계속)―

과실과기타음식을 엇더케채워둘가

랭수와우물을리용하야 가장간편히채일수잇다

말복(末伏)도이제는 하로를격하엿것마는 더위는 오히려날로 더심하야가는듯하니 그와반대로 사람사람이 찬것을요구하는 그도수가 점점심하가는듯 합니다 또한위생상으로도 랭장치(冷藏裝置)의필요를 늣기지아늘수업스나 만흔돈을드려

◇**랭장고** (冷藏庫)를만든다던지 또는하로벼근식 어름을사용하야 음식을 채여둔다는 것은 엇던일부의계급 또는큰도회디에잇는 가뎡이 아니면 도뎌히 저마다 할수업는일이올시다 여긔말하고저하는것은 돈도어를도들지아니하고 누구나할수 잇는 경편하고 경제뎍인랭장장치법이니 일반가뎡에서 시험하여보시기를바람니다 우유나쌔ㅣ루 사이다그밧게 보리차、화채、실과즙가튼것을 차게하여먹으라면 이왕류리병에 들어잇는 것은 물론그대로 둘것이요보리차、화채、실과즙등ㅣ각가뎡에서 손수만드는것은 반드시 류리항아리혹은

◇**류리병** 에너허서병마개를싸고 그우에저즌수건을 아래까지나려씨운후 병입을 노끈으로 잡어매여달고 통이나대야에 랭수를붓고 그매달린병을수건이 느러진채로 절반쯤물에닥글것이올시다 그러케하면 병에씨운저즌수건이 마르틀따라 물에젹신수건끗흐로부터 수분을흡수하게되나니 여긔서 긔화열(氣化熱)을 요구하게되야 병속에잇는열을 자연히 쌔앗게될터이올시다 이법을리용하야 겹시나사발에담은것까지라도채여둘수잇스며호박、오이、가지、무、배추등야채나 혹은참외、수박、각색과실은 큰

◇**바구니** 에담어서바구니양편을 노끈으로쒸여서 우물긔둥에잡어매고 아모조록 그바구니가 물에다치안토록 하여야합니다 우리조선 가뎡에서는 보통참외나 수박이나 호박가튼것을 그대로물에 띄워두는풍속이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첫재로물에오래 담거둘사록 맛이싸질뿐만아니라 우물 가온데잇는미균이 붓기가쉬웁니다 그럼으로 직접수면에 접촉되지안토록 달어매는것이 가장조흔방법이며 디상(地上)과 디중(地中)과의열(熱)의 작용으로매우차게되는 것이올시다 또한무엇이나 부억뒤人문밧게 해가들지안는곳을 택하야 두서너자가량을파고 야채를저장하는것도 비교뎍 효과가 만홉니다

◇**진명녀학교동창회** ‖ 시내창성동 진명녀학교동창회(進明女學校同窓會)의뎡긔총회는예뎡과가티십일일오후두시부터 그모교안에열리엇는데간단한총회절차를마친후조선고악(古樂)의연주、가장희극(假裝戲劇)제비뽑기등자미잇는여흥으로질기다가오후다섯시경에산회하얏다 고(사진은동창회총회광경)

여름과학

유지에글씨쓰는법(八)

무슨물건이던지자긔의일홈을쓰지아니하면다른 사람의 물건과서로밧고이기 쉬웁고또한일허버리기쉬웁니다 더구나지우산가튼것은 여러사람의것이한씌석기면용이히네것내것을분간키어려울뿐만아니라 학교에다니는 아이들은비올때마다우산을밧고가서는밧구어가지고옵니다바쥐우산이면흰실(絲)로일홈을 색이여도조흐나지우산은 우산머에 일홈을파서색이기전에는물들먹으로써야할것이올시다 그러나유지(油紙)는 먹을잘밧지아니함으로 벼루에 초(醋)를뭇고먹을갈어서쓰면 글시도잘씨워지고 물에얼는지워지지도안습니다양초나 기름긔운이잇는조희나 비단옷감에도 그러한방법으로쓰면잘씨워집니다

金剛禮讚(一九)

白雲香徒

鳴淵

◇松蘿洞에는望軍臺의편으로 松蘿峰、一名方丈이잇서曾往에는藥茶를四方에느려서까지登眺에便케하얏드라하며 峰下에는 大小兩松蘿庵이잇서 後方으로서望軍臺오르는路次이엇다는데 이제는뷔인터만남엇습니다。方丈과松蘿가「밀」과「살」의對字로古神道의有緣語임은두말할것업는일입니다。

◇松蘿洞에서나와서萬瀑洞本流로도리와長安寺에서約十町쯤거슬러올러가면긔운차게쎄더난一帽嶺이머리를구름속에감초엇슴을보나니 이것이일홈조차앗질한天柱峰이란것입니다。그밋헤安養庵이잇서磨崖石佛을뎡허서法堂을지엇스나高僧懶正禪師의이룩이라합니다。附近에七峰이錯列한七星臺란것이잇고臺下에는新羅敬順王妃의出家棲止處라는頓道庵이잇습니다。頓道는妃의法名이라합니다。

◇安養庵으로부터개울을뎍호노나려오면문득峻峰이압흘막고廐石이비탈을느은곳에深不可測일식컴언一潭이구슬은소리를지르고잇습니다。이것이「울소」곳鳴淵입니다。古籍에는鬱淵이라고하든것입니다。峰이고壁이고劈痕이모다곤직하고 喬木蒼藤이또한다곤직하고 소도날하자면곤거생기고 이리저리橫斜하야잇는石塊들이또한다걸울곤직하야모든것이곤고엉큼스럽게한번솜씨를뵘엇습니다。斷崖巨石으로쎄저나가는물에소린들곤지아니하겟슴니까。

◇너른기를高麗時節에金同이란外來의一居士가여긔와서精舍를눗고지내는데 항상懶翁大師의德望을猜忌하야어떠케든지落名식일꾀를 내고나번번失敗하고나종에는金同이懶師를좀다佛像彫刻을겨누되劣한者는天譴을닙기로하얏습니다。懶師는좀리다못하야그러면靈山의十大弟子를彫刻하마하시고 金同은오로佛像을한아새이마하시고 로밤동안에一大岩面에勝妙한三佛像을刻成하얏는데 金同은오래苦心하야그背面에五十三佛을새엿스나手法이比較가아니될만치拙劣하얏습니다。

◇그날밤에과여雷雨가大作하야金同의精舍와器具와乃至身體까지이深淵으로陷入하야버리니 시방소의중간에가로노힌二十尺길이나되는네모진돌이곳그의屍石이며 그의三子가이소식을듯고달려와서晝夜號哭하다가그대로시진하야죽은것이소의左邊에잇는三兄弟石이라합니다。南秋江의金剛山記에는指空과金同이道의正邪를다토다가그ㅣ된줄무런혓습니다 대체二敎葛藤說話의오랜증설이이사람저사람에게依違됨일것입니다 가만히데미다보면어씨우는지는몰라도흑흑늣기는소리가귀보담도더눈으로들림은事實입니다。

◇寫眞은鳴淵附近의探勝路

휘는려진가지우에
處女의입술가티붉고
달큼한香氣를던져준다
반갑게도 어려안겨
나에게永遠한사랑을준다
오ㅡ永遠의神이여!
나를保護해주소서
붉은봉숭한處女의몸에서
다시浮生을兩하야도라설때에
는
두눈에는차되찬눈물만
커ㅡ「라인江」의追憶과갓다
원ㅡ宇宙는永遠한沈默에……
말이업시다親密에부드처든
비는게여방울커흐를뿐
오속모긔비대만며든激發을준
다

眞夏의正午

金宙遠

죽은듯고요한여름안울엔
시름업시생각에저준
하얀구름이꿈사듯조놀고
숨길막힌듯한맥풀린령우에
시드러진나무와풀은
微風의가ㅣ는숨결속에서
새로운근력을어드려는
아희은나그네인내마음블려라
게을오게보이는푸른웃음이
피곤하야느러진
나무수풀을지날쌔마다
멀ㅡ니서매암이여의
듯기에도고달푼토막울음은
熱情이무르녹는날빗속에서
붉은생명을쓰려가느니
아!어린내혼의노래일러라
―一九二三、八―

小說 웃고십건 우서라!(一二)

周相作

七

세상만사에 청쇠와뎐변이 업섯드면 상뎐이벽해될리업고 인간일생에 리별이人자 업섯드면 사랑이 모지(方)단말 웨잇스랴 그러면 리별의쓰린눈물을 어쎄사탕의 검넘이 나리신신긔의술잔이라고 반기인 이날의이잔채가 리라고 원망만하랴만은 집브봉선이의쏫과갓고 꿈과갓든 반생을 흰니人발에걸어 갈갈이쐬저노흔다는 악마의 희롱이줄이야 어씨알앗스리요

오늘이잇슬쎈이요 래일을 모르는 런남싸녀는 취흥이도도하이 보드러운봄밤 가비야운단꿈에 어린듯이 쌔일이쌔어뎐안방미다지에 어리운 잔촉의하던엽는불빗과가티 새새이흘더나오는놉고나진 저속살거림은 그웬흘늣기는 저울음소리는 누구의 간장을 끈흐랴는고? 울랴는세상이요 괴로우랴는 인생인가? 봉선이가 최랑군을만나 도합은 사랑 극진한호강에 온뎡흔온몸 둥아리를 다ㅣ녹엿다한들 오는 몸 가는가을을 멧번이나맛고보내엿는고?……씁씁한 마음을 노래와 춤ㅣ웃음과술로 가시어보다다못한 최영준은 또다시실망과 울화와피로에허덕이며 안방에 드러와안저서도 찝흐린이마人살을 펼줄을몰랏다

「웨 그리세요?어듸가압흐세요?」하며 봉선이는참다못하야 입을버렷스나 남편은 마음에업는웃음을 지어보일쎈이다

『그럼 웨그러세요?』

남편의웃음에 말못흠잡는 봉선이는 한칭더 안탁가워누렷스나 남편은 여전히입을다을말그럼히바라다보다가 별안간목니 메이는듯한 나직한 소리로

「우리가 만난지가 멧해人재든가? 꼭두해!그동안미안한일도 만핫지만 자미잇섯다면자미잇섯슬싸?」하며 안해의손목을꼭잡는다 그러나 봉선이는지금 무슨소리를들엇는지 귀가 징하고 눈이확근해지는것을 쐐다른면서

『그게 새삼스럽게 무슨소리에요』하고저오고개를 돌엿스나 인제는 마즈막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나자 눈은별서 글성글성 하야젓다

『안이 글세말야』

남자는 한칭더목소리를 썰려 흘려 한마듸하고 또밧앗은잘잠하야젓다

이쌔에 봉선이의 머리人속에는난데업는 어떠한생각이 번개가티번쩍하고 떠올으자 얼굴이 화끈하면서도 몸서리를 치이며 식은쌈이 이마人전과 저드랑이에 봇처솟는것을 쌔다랏다 그러나그것이 무서운것은 아니엇다 다만 어떠한헛개비가 몽롱히눈압헤 떠올러오는것을 머리人속에분명이 그리어보앗슬쎈 이엇스나그것은 몰이여 뜨거운정열에 올자아내이고 말할수업시 유쾌하고 속이시원한듯겁을 주엇다 별안간 더운피가전신에 확퍼지고가슴이 울렁거리는것을 쌔다랏다인제는더참을나위업시그는 쥐고잇든 남편의 왼팔을쓰러얼싸안으며 반쯤우는듯한 애처러운소리로

『웨그리세요? 웨그리세요?비? 웨그리세요?』를세번이나 뇌이다가 말끗이 자즈러지자 박하고울음이 러지면서 남자의 가슴에 머리를파부덧다 이쌔까지입을꼭담고 람포불만 깜작깜작하며치어다보고안젓든남자는 여전히 그대로안저서 오른편손만들어다가 가슴에실린 녀자의 머리우를 삿붓이 덥허주엇다 눈핫다 자즈러젓다하는 울음소리만 고요한달밤에쌔이고 안옥한불빗에 어리운 이방의공긔에 잔잔한파동을 던지엇다

水災義捐金

조선수해리재구제회에온것

(笠井町) 金十圓式 寶井熊次郎 山本平三 三藤熊市 金五圓式 竹本義忠 鈴木直藏 會羽幸三 石橋覺次郎 金三圓 山本平治 金二圓式 藤崎新吉 小方藤吉 金用珠 金一圓式 村岡織藏 須田起夫 内藤茂 富永辰太郎 山城壽三郎 塚田重市 矢野卯七 末延谷五郎 青木熊二郎 阿南數夫 森尾아기 垣田耕造 金卿㥁 朴鳳奎 李重穆 朴濬裕 同廷佑 姜奎錫 李壎燮 韓公直 李所回 李丙灝 李熙鎬 金璟煥 金五十錢式 弘中登 佐藤要藏 金有道 安壽完 崔麟永 裴允明 金景三 魏公直 權新壽 崔德鎬 李澧薰 李鍾元 池成斗 朴奎楨 金百圓 古城菅窪

(若草町) 金五十圓式 河野彌 山崎鹿藏 楠木吉太郎 今村豊人 馬場다기 金三十圓式 金井豊七 田中半四郎 森本榮松 金二十圓式 生田松太郎 中田淸一 吉田源一郎 金十圓式 高田太一郎 井上秀男 土田兼光 吉田拵吉 内藤正一郎 岩本貞吉 瀧川一江 西川利八 西村元 井村秀太郎 金五圓式 山田德次 佐藤圭次 梅津하쓰에 諸岡源吉 上木淸助 中本太郎吉 岡田兼松 岸本禮三郎 津津見幸治 杉浦永松 白井俗一 加地末次郎 中村金七 中村文吉 中村傳次郎 秦精次郎 大田綱男 牛丸소노子 新山靜夫 金三圓式 下田捷二 鯉川登一 伊藤正喜 池田寬太郎 別府고도 乾吉太郎 호시노야 飯尾芳太郎 廣田藤枝 岡田藤吉 菱山가야 古家小谷之助 島井秀馬 岩崎晋次 佐藤도구 金二圓式 掠木民夫 野澤淸松 大久保總一 角一彥 西村印刷所 竹下榮松 富山龜市 福島要造 倉田惠次郎 林田順一 松岡에나요 服部榮次郎 大澤康三 眞鍋賴次 岩本筆藏 齋藤勝治郎 森宗七 小山輝雄 安立惣輔 中岡彌太郎 大門內一男 大石專三 長井虎吉 田中新作 鍛冶伊三郎 金一圓五十錢式 三原卯太郎 武田義

小兒가轢傷

인천매축공사장에서

지난십일 오후열한시경에 인천부송현리(仁川松峴里)매축공사장에서 송현리팔십칠번디 사십이호에사는 금년네살된 장소운(張小雲)이라는 어린아이가 살가티 달려가는화물(貨物)구루마에 치여서 오른편발다섯발가락이 전부헤저서 쌔가드러나고 또두부(頭部)가 약간상하엿는데 이것을본 그부모는 그아이를안고 인천경찰서를 경유하야 소창병원(小倉病院)으로가서응급치료를바덧는데 생명에는 관계가업스나 약일개월간치료를 밧게되리라하며 치료비는 동매축디의청부업자인 좌등조(佐藤組)에서 부담하기로하엿다는바 그부모되는사람도 부주의한점이 업지아니한즉 그동리사람들은 극히주의할일이라더라(인천)

讀者文藝

꿈나라

益山 宋在寔

蒼白한줄을타고
山을넘고바다를건너
하날업시휘날려가니
뫼(山)아래에
半넘어문어진오막사리

南江治水問題로 晋州市民憤慨

總督當局態度冷情하다고

慶南晋州에서는同郡南江治水問題를來年度에實現하기爲하야同郡市民을中心으로全郡民이連絡하야南江治水期成同盟會를組織하고陳情委員五人을選定하야朝鮮總督、政務總監以下關係當局에陳情케한바陳情委員은去二十六日午前十一時晋州發車로上京하얏다함은旣報와如하엿거니와去八日午後九時晋州座에서市民大會를開催하고陳情委員代表는陳情한

顚末을

報告하엿는데去月二十七日慶南道廳에가서和田知事를訪問한後同知事及土木課長의紹介를엇어二十八日總督府에出頭하야齋藤總督下岡政務總監以下關係各局課長을次第로歷訪하고前記治水事業을來年度豫算에編成實現케하야달나고陳情하얏스나下岡總監은勿論晋州를爲하든지沿岸各郡을爲하든지南江治水도急務이나漢江을비롯한今般

江陵修養團

十五日에發會式

旣報=江陵에靑年으로組織된江陵靑年修養團에서는來十五日에밤과낫으로낫에는行例宣傳과밤에는餘興으로音樂演劇等이잇스리라는때入場은無料로一般은만이와주기를希望한다하며場所는江陵俱樂部이라더라(江陵)

禮山市民大會

圖書部設置

東萊少年會 發會式盛況

順天勞靑總會

忠南記者大會

南浦米輸出激增

慘禍의同胞를爲하야

公州水害救濟 臨時總會開催

有志同情還至

保寧에도 水災救濟會

有志發起로組織

襄陽에 學術講演

初有의盛況

江陵에留學生討論

禁酒會創立

金化郡水害狀況

救濟音樂盛況

救濟音樂會에

端川에서歌劇會

淸道靑年 會館工事進涉

烽火會總會

義友團創立

鐵原에染病猖獗

郵便貯金現在

全江陵庭球會

夏期와運動

平海庭球大會

价川庭球大會

慶南蹴球大會

珍島의庭球戰

同進軍이勝利

四郡聯合庭球大會

◇寸鐵◇

旅客有志께告함

星州留學生學友會 懸賞 庭球大會

時日 八月二十三日
場所 星州公立普通學校
申請場所 朝鮮日報星州分局
申請時日 八月十八日
品 一等、二等、三等(當日決定)
主催 星州留學生學友會
後援 星州靑年會 朝鮮日報星州分局

嶺南庭球、蹴球大會

時日 八月十五、十六、十七三日間(雨天順延)
場所 高靈公立普通學校運動場
加入期日 八月十二日
加入金 各한림三圓
加入選手 庭球한림三組、蹴球한림九人候補二人
抽籤時日 八月十四日午後八時

第一回慶南蹴球大會

南朝鮮庭球大會

全朝鮮水災救濟會

第一回咸南女子個人庭球大會

全安東庭球大會

第二回咸興少年庭球大會